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도 희망 일시	제한없음(즉시)
문의	- 행사진행: 사무국 총무과 - 수상자 선정: 학생(학생지원과) 등
	기획처 홍보팀 880-9072, 5054

배포일: 2024.10.14.(월)

제78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 서울대학교는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제78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한다.

□ 유홍림 총장은 기념식에서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할 비전을 제시하는 일, 그 과정이 비록 힘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앞장서 나아가는 것이 서울대의 소명”임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를 밝히는 집단지성의 산실로 서울대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득과 조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첨부1】

□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 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교수회장상 수상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어 ‘제3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와 선정증서 수여가 진행된다. 올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는 故김민기 학전 대표,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주)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이 선정되었다.

※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보도자료 별도 배포

□ 개교기념식 주요 식순(2024. 10. 14.)

- 국민의례
- 표창: 장기근속 교직원 및 봉사 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유관기관 직원, 교수회장상
- 개교기념사(유홍림 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축하, 교가제창

[붙임] 개교기념사(총장), 축사(총동창회장)

[붙임1] 개교기념사(총장)

서울대학교 학생, 교직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대학교가 개교한 지 78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서울대 모든 구성원께서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서울대학교의 공지를 드높여온 서울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날카로운 질정으로 서울대의 발전을 늘 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는 줄곧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의 연구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대학의 제도와 운영 방식을 바꾸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급속한 사회, 경제, 기술적 전환과 불확실성의 증대가 기존의 고등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서울대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혁신의 동력을 더욱 키워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기 속의 기회’ 라는 말에서처럼 도전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어내는 지혜와 실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할 비전을 제시하는 일, 그 과정이 비록 힘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앞장서 나아가는 것이 서울대의 소명입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오늘 개교기념일을 맞아 우리 학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서울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후 1975년의 ‘종합화’ 와 2011년의 ‘법인화’ 를 거치며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종합화는 교육, 연구, 인프라 등 모든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실천 의지를 담은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종합화 50주년을 곧 맞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종합화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는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학 혁신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종합화는 엄청난 양적 성장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간의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창출을 가능하게 만든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연합대학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한계도 있어 그 유산이 서울대학교 거버넌스나 운영 관행에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거대한 규모로 팽창한 대학은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관리되었고, 이로 인해 단과대학별 학과별 칸막이 현상과 중층적, 위계적 운영이라는 결함을 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대학 거버넌스와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십여 년 전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라는 새로운 길을 과감히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대 스스로 내부 혁신을 이루어 나갈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의 운영 방식과 관행의 질적인 개선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아프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으면서 저는 우리 선배들이 일구어 온 대학 혁신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 동력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 ‘서울대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교육·연구 생태계’, ‘세계로 뻗어가는 개방적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지향 아래 지금 서울대학교는 교육, 연구, 사회공헌, 대학 운영 제도와 방식, 인프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롭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전통적인 학문 간 칸막이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융합적으로 사고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이어 내년 3월에는 학부대학이 출범합니다. 학부대학은 우리 학생들이 ‘도전과 공감으로 미래를 여는 지성’으로 성장하도록 공통핵심역량, 융합역량, 글로벌역량 교육을 제공하며 향후 모든 서울대 학부생들을 위한 개방적인 고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창의성과 융합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 기술, 경제, 환경, 안보 등 우리 사회와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다루는 초학제적 융복합 플랫폼들도 하나씩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연구의 시너지를 위해 양자연구단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도 만들 계획입니다. 시흥 캠퍼스에는 첨단 바이오산업

융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산·관·학 메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대한국종합연구 플랫폼 등 개방적 연구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회공헌의 내용적 혁신을 위한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도 지역과 국가,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를 맞아 대학연대 지역인재양성 사업단을 설립하여 서울대의 자원을 지역 대학과 공유하고, 지방 학생이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치,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등 국가적 난제 영역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SNU in the World’ 프로그램 등 서울대형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한층 더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인류를 위한 따뜻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사회공헌 영역에서의 이러한 혁신이 더욱 활력 있고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학교의 운영 체제와 방식, 조직문화와 행정지원 서비스 전반의 질적 개선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사업 평가의 엄정성과 자원 배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와 지원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정보화 인프라와 역량도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빠른 속도로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중층화된 의사결정 구조, 경직된 관료주의적 조직과 관행, 학문과 행정 단위 사이의 분절화, 편린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와 제도혁신위원회가 상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여 개선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대학 거버넌스와 운영 방식의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미래를 개척하는 학문 공동체의 토대입니다. 이러한 혁신 목표는 서울대학교를 늘 성원해주는 국민과 후속 세대를 위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소명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선택해 온 종합화와 법인화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고, 이를 미래 사회에 맞게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서울대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는 조금 더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의 혁신은 우리 각자 그리고 각 구성단위가 스스로 함께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낯설고 어려움과 불편함도 수반할 것입니다. 저는 신뢰와 소통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과정을 헤쳐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밝히는 집단지성의 산실로서 서울대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득과 조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78년의 역사 위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서울대의 혁신이 서울대 구성원 모두의 자긍심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앞날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의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를 모아 다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 총장 유흥림

[붙임2] 개교기념식 축사(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유흥림 총장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교 교직원과 선후배 동문 및 내외 귀빈 여러분. 모교 개교 78주년과 개학 1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서울대 44만 동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대 역사를 떠올리면 몇 가지 이정표가 생각납니다. 법관양성소를 설립하며 서울대가 태동한 1895년, 각 단과대학을 통합해 국립서울대학교로 개교한 1946년, 관악 캠퍼스로 이전해 캠퍼스 종합화를 이룬 1975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2011년 또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총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동문이 합심해 서울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수상하신 정영선, 고 김민기, 홍석현 동문님 또한 그 주역이십니다. 정영선, 홍석현 두 분과 고 김민기 님의 유족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모교는 이제 또 다른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내년인 2025년 종합화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반세기라는 세월의 흐름에 그치지 않고, AI 열풍,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등 시대상과 맞물려 모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무겁습니다.

유흥림 총장님께서서는 종합화 50주년을 맞아 반세기 전의 종합화와 10여 년 전의 법인화를 비로소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셨습니다. 50여 년간 한마당에서 어울려 살아온 이 캠퍼스를 융합의 플랫폼으로 삼아, 학제를 초월한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교는 교육 차원에서 기숙대학과 첨단융합학부, 곧

출범할 학부대학, 그리고 연구 차원에서선 국가미래전략원과 얼마 전 출범한 공대 싱크탱크까지 방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역시 다양한 전공과 분야를 가진 44만 동문의 융합체로서, 경계를 넘나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발하는 일은 우리 서울대가 가장 책임자임에 동감합니다. 재학생부터 동문들, 교직원까지 서울대인에게 아직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모교의 노력에 동창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우리 서울대인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에 보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는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라는 깃발 아래 서울대 동문이 나라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산하에는 사회공헌위원회가 있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창회이기에 선한 인재를 양성하는 모교의 활동이 더욱 반갑습니다. 특히 꾸준히 국제 공헌활동을 해왔던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과 동창회는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 동창회는 네팔 SNU 공헌단에 동문 단원을 파견했습니다. 재학생과 동문, 모교가 하나되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동창회는 올해 역대 최고액인 40여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장학생 1,50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중에는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에 매진하는 학생도 포함됐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후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동창회의 뜻이 담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친 재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압니다. 힘들고 꾀은일에 먼저 나서는, 나 하나의 영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청년이야말로 모교와 동창회가 합심해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인재입니다.

오는 10월 20일에는 관악캠퍼스 벚들골에서 홈커밍데이를 개최합니다. 가을의 절정기에, 서울대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교의 개교를 축하하며, 아울러 모교에 헌신해 주신 교직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교와 여러분의 앞날에 광영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4.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김 종 섭